

## 7. 문화적 정체성 Cultural Identity

초기 기독교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제3문화 자녀였다. 바울이 보호구치 되었을 때, 그를 체포했던 장교가 그가 누구인지를 묻자 바울은 대답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행 21:39)라고 했다. 즉 바울의 부모님의 ‘모국 문화’가 유대문화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한 도시였던 다소성에서 태어났고, 그곳은 현재 터키 동남부 지방이다. 그 당시 다소성에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서 그 곳의 사람들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사실상 다소성, 아테네(그리스), 알렉산드리아(이집트)는 그 당시 3대 주요 도시였다.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다소성을 가로지르던 강가였다.

어렸을 때 바울은 여러 가지 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가정에서는 유대 문화, 그가 살았던 곳에서는 로마의 문화, 그가 어려서부터 쓰던 언어와 그 곳에 있던 대학으로부터는 헬레니즘 문화(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혼합됨)를 받았다. 바울이 자신을 체포했던 장교에게 그리스어로 말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리스어도 유창하게 했다. 그 장교는 바울을 4천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이끄는 이집트의 수장으로도 생각했었다 (행 21:38).

바울은 또한 일종의 구어체 히브리어인 아람어도 사용했다. 바울은 군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 군중들에게 아람어로 말해도 되는지 장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아마 바울은 10대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구약성경을 통달하고 그의 유대교 신앙에 전념했을 것이다. 바울이 군중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인 문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다소성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 언어와 사고방식에 능숙했고, 제3문화 자녀로서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소유했으며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했다.

물론 그가 속한 문화 안에서 성인이 됨으로써 정체성을 얻는 것은 특정 연령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대인과 로마인 둘 다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 의식을 갖고 있다.

### 유대인 Jews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인식인 남성을 위한 바 미츠바(bar mitzvah)와 여성을 위한 발 미츠바(bat mitzvah)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율법의 아들 또는 율법의 딸이 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중에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탈무드는 13세 남성과 12세 여성은 성인으로서 종교 및 법적 의미를 가진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이 13세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고, 딸의 경우에는 12세까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자녀들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년이 성숙한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가 토라를 낭독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이다. 열세 번째 생일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토라를 낭독하게 되고, 소년은 대중 앞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완전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의 새로운 역할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의 아버지가 토라를 읽은 후에 그는 “이 소년의 책임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이는 복이 있도다”라는 축도를 낭송한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인 남성은 아침기도를 위해 ‘성구상(tefillin)’을 착용하게 된다. 이는 ‘성구함’이라고도 한다. 성구상은 유대인 성인 남성(소년은 안됨)이 특정 성경 문구를 그들의 이마와 왼팔에 두르는데 그것을 담아 두는 가죽 주머니를 말한다.

비록 바울은 13세 나이에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예수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13세에 성인이 되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12살이었던 예수를 예루살렘에 두고 떠나 하루 종일 잊고 지낼 수 있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가 그 후 일년도 안돼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그는 오늘날 미국에서 17세의 나이와 같은 것이다.

## 로마인 Romans

우리 대부분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성인이 되기 위해 통과하는 로마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로마 문화에서 그들은 같은 나이 때즈음에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됐을 때부터 그들 목에 불라(bulla)라고 불리는 작은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아마 악령을 막기 위해 착용했을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의 이름은 로마의 공식 명부에 등록이 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출생 기록부와 같은 것이다. 로마인들이 입던 토가(toga)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각 유아가 어린이가 되면서부터 토가 프리텍스타(toga prae-texta)라는 겉 옷을 입게 된다.

소년들이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을 때즈음 그들은 성인이 되었다. 3월16일, “리베렐리아(Liberalia)”라는 날에, 이를 축하하기 위한 엄숙한 의식이 열렸다. 집에서 각 소년은 유년기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그 가족의 제단에 내려 놓았다. 그 중에는 그가 좋아하던 장난감들과 그의 이름이 지어졌을 때부터 입던 불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토가 프리텍스타를 자신이 남성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토가 비릴리스(toga virilis)’로 교환했다. 가정에서 행해진 이 의식은 후에 광장에서 더 인상적인 공식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변화는 분명했다. 불라를 입었는지, 토가를 입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성인인지 또는 어린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기대와 책임은 모두에게 분명했다. 불행하게도 현대 서양문화에서는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

## 현재의 미국 USA Today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식이 성인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따뜻한 여름 날에 18세의 청소년들은 검은 졸업 가운을 입고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한 사람씩 교단을 향해 행진한다. 한 사람씩 앞으로 가서 사각모에 달린 실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기고 졸업장을 받게 된다. 모두가 환호와 축하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성인들로부터 그들이 다 성인으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한 절반 정도는 수 년간 더 학교에 남게 되고, 그들의 청소년기를 그만큼 연장하게 된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한 고등학교에 비치된 작고 짙은 파란색의 서류철 표면에 독수리 모양과 “성인기로 가는 여권”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다. 내가 청소년기에 관심도 있었고, 그것이 여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 때 나는 ‘선발징병제’라는 단어들에 독수리 모양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열자 이런 문구가 있었다. “남성들: 당신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당신은 성인이 된다. 그것과 함께 보상이 주어지고 또한 책임도 주어진다. 당신이 해야 할 책무들 중 첫 번째는 선발징병제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한다는 것은 그들이 군대에 징집되고 해외로 나가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인이 되는 때가 그렇게 간단명료하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서양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도록 하는 특정한 연령이나 의식이 없다. 다만 여기에 다른 여러 상황에서 성인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나이가 있다.

-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Eating at restaurants**  
모든 음식점들이 특정한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성인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나이는 약 12세 또는 13세이다. 일부 음식점은 젊은 사람의 키를 재기도 한다. 물론, 음식점 주인들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인이며 적어도 어른 만큼, 아니면 그 이상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영화관에 입장할 때 Entering movie theater**  
모든 영화관들이 어느 특정한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성인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나이는 약 12세 이다. 영화관 주인들은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관람한다는 것과 그들이 전액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학교를 중퇴할 때 Dropping out of school**  
오늘날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그들이 13세에서 18세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고, 만일 그들이 원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나이가 16세일 때이다.
- **직장에서 일할 때 Working a job**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15세에서 18세의 10대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노동법이 있고, 18세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나이이다.
- **결혼할 때 Getting married**  
대부분의 주에서는 18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선거에서 투표할 때 Voting in elections**  
미국 헌법 개정에 의해 18세로 정해져 있다.
- **술을 구입할 때 Buying alcohol**  
이는 주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21세 이다. 나이 제한을 내릴 경우 연방 정부에서 받는 고속도로 보조금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주마다 또는 각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10대들은 자신이 성인인지 아닌지에 혼란스러워 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주에서 정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지만, 그들이 다른 주로 이사를 하였을 때, 그들은 부모님과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 조차도 취득할 수 없다. 그냥 모텔에 있는 방에서 방으로 걷는 것도 당신을 성인에서 어린이로 바꿀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당신이 12세에 성인이다. 그러나 호텔 접수대에서는 당신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어린이고, 주점에서는 21세가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이다. 성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성인식(bar mitzvah)’에서 단지 ‘주점(bar)’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놀랍다.

## 정체성 찾기 Finding Identity

우리 문화에서 성인의 정체성을 얻지 못하자,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다움을 느끼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모색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속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시도했던 일부 실례들이다.

- **약물 Drugs**  
특정 약물들을 시작하는 것은 나이와 관련이 있다. 수년 동안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담배였다. 그러나 흡연은 다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력은 예전 같지 않다. 술은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서 용납되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으로 접할 수

있는 약물은 대마초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면서 강하고 훨씬 더 위험한 약물을 사용한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약물은 그들에게 성인 정체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오로지 그들로 하여금 과실자 또는 범죄자라는 오명만 얻게 한다.

- **동질감 Conformity**

사춘기와 정체성 결여를 느끼면서 동질감은 일부 중학생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한 그룹을 (대부분의 학교는 대여섯 개 정도에 별개의 그룹이 있다) 골라 정하고, 그런 다음 그들은 옷 입는 것, 말투, 사고방식까지 그 그룹처럼 한다. 물론 몇 년 안에 그 그룹들은 운동선수에서부터 대마초 중독자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떠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정체성 또한 사라진다.

- **부정주의 Negativism**

청소년들은 성인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성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기 원한다면, 10대들은 다른 옷을 선택할 것이다. 실제 그들이 성인 사회에 들어가고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을 때 이런 정체성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 **개종과 광신적 종교 집단 Conversion and cults**

개종과 광신적 종교 집단. 또 다른 10대들은 종교를 통해 정체성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한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사춘기 때즈음에 교회에서 성인으로 대우받는지 안받는지 알기 위해 ‘개종’을 시도해 본다. 그들은 여전히 그 교회에서 어린이로 대우받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 좀 나이가 있는 이들은 (18세 이상) 이단에 가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체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그 집단을 떠난다.

물론 우리 문화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성인 정체성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인으로 대우해주는 나이에 이르는 것이다. 흔히 이것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어난다.

### 제3문화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청소년기는 우리 문화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청소년으로 있는 동안은, 당신이 전체 문화의 변화를 유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어쩌면 당신의 교회 (적어도 중/고등부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학교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사립 학교일 경우).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가족 Family**

당신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이 어느 특정 나이가 되면 그들을 성인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당시 내 아내와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13세가 되면, 그들 자신한테 훨씬 더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을 감수했다). 오히려 용돈을 주는 것 보다, 우리는 그들에게 ‘월급’을 ‘급여’하였고, 자신의 옷, 학용품, 점심, 그들이 운전할 수 있을 때 자동차 기름 값 등을 구입해야 했다.

- **교회—중/고등부 Church—youth group**

교회 중/고등부에서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인도한다. 중등부 학생들은 주일학교 분반공부를 돕는다. 중/고등부 여행에서는 일부 나이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회버스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해 준다. 예를 들어, 차량 기름 점검, 타이어 공기 압력 점검는 것들이다. 아무도 그것을 재확인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 **축복기도 The Blessing**

가족, 교회, 학교에서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줄 것을 제안한다. 이것에 관한 좋은 책은 1986년도에 게리 스몰리(Gary Smalley)와 존 트렌트(John Trent)가 저술하고, 뉴욕주의 뉴욕시에 있는 사이먼 & 슈스터(Simon & Schuster) 출판사에서 출판된 ‘축복기도’다. 축복기도는 한 집안의 전통으로 자녀가 부모들이 정한 성년의 나이가 될 때 행해졌다. 그것은 교회에서 또는 중학생이 되는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칠 때 행해졌다) 또는 달리 정한 나이 때에 행해졌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부모가 축복기도를 한 그룹 안에 있는 그들의 자녀에게 해주고 그 그룹에 있는 다른 모든 부모들의 축복기도도 듣는다.

- **약물 Drugs**

불법 약물 복용에 유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은 그들을 위해 처방되지 않은 합법적인 약물들을 남용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에 “파트너십 에디튜드 트래킹 스터디 (Partnership Attitude Tracking Study)” 연구에서 비코딘 (Vicodin, 4백3십만 명), 옥시콘틴 (Oxycontin, 2백3십만 명), 리탈린/에더롤 (Ritalin/Adderol 2백3십만 명), 기침약 (2백2십만 명) 을 청소년들이 크랙/코케인 (Crack/Cocaine, 2백2십만 명), 엑스터시 (Ecstasy, 2백만 명), 메탐페타민 (Methamphetamine, 1백9십만 명), LSD (1백 4십만 명) 보다 더 사용해봤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합법적인 약물들은 통증과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어떤 약물이든지 (처방전 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 아무렇게나 섭취하면 안되고, 처방전에서 지시하지 않은 용량을 복용해서도 안 된다.

- **제3문화 자녀의 잠재적인 문제점**

제3문화 자녀로서 청소년기에 겪는 일반적인 것 외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주류 문화와 여권 문화가 똑같은 청소년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문화 간에 있는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문화가 청소년기를 만들어냈고 다른 문화가 그렇지 못했다면, 두 문화 사이에서 오는 추가적인 갈등을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중 한 문화를 선택하고 그 문화대로 사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이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http://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http://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